

삼성전기, LED BLU 대폭 확대

2009년 2조7000억원 시장 선점전략 ... 조명용 LED 시장도 진출

삼성전기가 LED BLU(발광 다이오드 백라이트 유닛) 및 조명용 LED 시장에 진출해 LED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10월10일 발표했다.

삼성전기는 그동안 휴대폰용 LED 부문에만 진출했다.

LED는 빠른 응답속도, 저전력소모, 반영구적 수명 등으로 전광판, 신호등, 휴대폰 키패드, LCD 광원 및 차세대 조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LED BLU와 조명용 LE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수십 명의 광학설계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제품을 개발해 2006년부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ED BLU는 자연 그대로의 색과 고화질의 영상을 재현함으로써 동영상 잔상문제를 해결한 친환경적 제품으로 CCFL(냉음극형광램프) BLU를 대체하며 2006년부터 시장규모를 연평균 200% 확대해 2009년에는 시장규모가 2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기는 2006년 상반기에 LED BLU 제품을 출시할 목표로 현재 LCD TV 선진기업과 초기개발 과정에서부터 공동개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7인치 차량 네비게이션, 24인치 모니터, 12.1인치 노트북 액정, 40인치 LCD TV용 등 LED BLU를 개발해 풀 라인업을 구축한다.

또 급성장이 예상되는 차량 네비게이션용과 세계 최저 소비전력(100W급) 및 기존 LED BLU 대비 50%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40인치 LCD TV용 LED BLU에 초기사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0년 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 LED 조명시장 진출 준비도 완료했다. LED 조명은 백열등, 형광등 등 기존 광원 대비 소비전력이 5분의 1 수준이다.

삼성전기는 조명용 LED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광효율 문제를 해결해 최근 일반 형광등 수준의 고효율 LED 기술을 개발했으며 조명용 LED 양산라인 구축 작업도 진행중이다.

삼성전기는 국내외 조명기업과 협력해 2006년 특수조명 시장부터 진입한 후 일반조명으로 확대해 2010년 조명용 LED분야에서 4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방침이다.

삼성전기는 2010년 LED 부문에서 총 1조2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10/11>